

1. 슈퍼에서 가정상비약을 팔면 편할 것 같다고요?

음주 후 머리가 아프다고 편의점 알바생에게 물어서 아무 진통제나 마음대로 복용하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슈퍼에서 약을 팔면 누가 좋을까요?

국민 편의를 빙자한 의약품 슈퍼판매 이면에는 대기업의 이윤창출 의도가 크게 깔려 있습니다. 이제 곧 시행될 종합방송채널의 막대한 광고수입을 약품 광고비가 메워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친근한 동네 약국은 다 쓰러져 대형마트로 차타고 약을 사러 가야하는 불편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왜 슈퍼판매를 강행할까요?

작년도 건보재정적자가 1조 3천억 이었습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건보 재정 지원이 4대강 사업등으로 지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감기약 등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서 비교적 가벼운 증상은 국민들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건보 재정 안정과 약국 접근성 확보를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인정한 우수하고 저렴한 의약품 선택이 가능한 성분명 처방 제도와 장기 투약환자의 처방전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